



첫째 바라는 것

生産資源이 極히 不足한 우리나라가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가자면 頭腦資源의 開發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勤勉에 겹드려서 創意力을 發揮한다면 先進國 隊列에 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企業競爭의 中心이 從來의 價格競爭에서 技術을 背景으로 하는 技術開發競爭으로 移行되고 있으며 또 그 技術을 權利化하고 專利화된 것을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 하는 것이 企業經濟의 根本問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將來展望은 內國人은 물론 世界 80餘個國으로부터의 技術流入이 必然的으로 늘어날 것인만큼 이에 대한 對備, 情報의 蒐集, 發明의 育成, 特許權의 實施와 그 防衛策 등등이 모든 것이 計劃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

특허제도 하면 특허권을 얻는것이 그 全部인양 錯覺하고 있으나, 權利화된 특허권의 內容의 把握과 새로운 技術情報를 多角的으로 수집하여야 되는 側面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備置되어 있는 美國, 日本, 國內의 公知文獻 즉, 公報에서 수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休眠中の 특허권을 平素에 살펴보면 意外로 「힌트」 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公報를 보면, 나라마다 特色이 있고, 기술에 대한 國民性의 특색이 있다.

自動車, 航空機에서 뛰어난 美國의 特許資料, 光學에 뛰어난 獨逸의 자료, 時計工業에 뛰어난 스위스의 특허자료 등은 貴重한 자료로서 이 分野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67年 發明의 新規性 調査機關인 I.I.B.의 發表에 의하면 先進技術의 정보를 取得하는데 있어 特許公報가 차지하는 比率이 91.3%이고, 非特許文獻에서 技術정보를 얻는 비율은 겨우 8.7%에 不過하다고 하였다.

公報를 읽는 習慣을 기르고  
發明考案品の 展示會를 갖자

〈大韓辦理士會 會長〉  
李 允 模

公報의 價値를 重要視하고, 公報에서 「힌트」와 「아이디어」를 取得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企業人 그리고 모든 技術人들이 평소에 每月 發刊되는 國內外 公報를 마치 新聞 보듯이 또는 小說을 읽드시 習慣化돼 나가도록 하는 것이 特許制度 運用面에서 잊어서는 안 될 要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 바라는 것

數年前에 「스위스」發明品 國際大會에서 「點火담배」가 金賞을 獲得하였다고 하여 一大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 있다. 또다시 1977年度에 같은 「스위스」大會에서 우리나라 發明家 몇 분이 金賞, 銀賞을 獲得하였다 하여 新聞紙上을 裝飾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頭腦資源이 優秀함을 다시한번 誇示하였다.

이들은 擧皆가 남의 도움없이 어려운 與件下에서 혼자 힘으로 發明을 하고 기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어서 더욱 그 功을 높이 評價하고 싶다. 이렇듯 우리나라 發明·考案에는 世界的으로도 損傷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안다.

1977年末 우리나라에서 許與된 특허 權만 해도 5,574件, 實用新案權이 14,378건, 都合 權利화된 것이 19,952건에 이르고 있다. 果然 이들의 內容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企業化될 可能性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이들 發明品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힌트」나 「아이디어」가 얼마가 될 것인가 또 그 중에서 政府가 選擇해서 國際大會에까지 進출시킬만한 것이 없겠는가 등등 궁금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멀고 먼 나라 「스위스」까지 가기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現在까지의 優秀發明品の 綜合展示會를 開催하여 前述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發明家의 士氣를 昂揚시켜 줌과 아울러 全國民의 發明思想을 鼓吹시키고 發明의 기업화를 위하여 기업인과의 結付를 찾아 주는 것이 특허제도 운영면에서 考慮해 볼만한 또하나의 側面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意味에서 새해에는 發明·考案品の 展示會가 있게 되기를 筆者는 懇切히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